

NH, 1만3000세대 산정지구 개발... 광주시 강력 반발

광산구 산정동 일대, 중앙도시계획위 1차예 유보 뒤 조건부 가결
광주 주택 보급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2030년이면 120% 육박
신규 아파트 10년 간 14만여 세대...군공항 이전부지 개발도 부담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의 거센 반대에도 1만 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다, 도심 외곽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심화 등을 우려해 공공주택 지구 지정 취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광주 도심 곳곳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1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군 공항 이전 부지에도 상당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거래 자체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향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가구별 연도별 연평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렸다. LH는 이달 내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5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마무리 한 뒤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산정 공공주택 지구 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다. 2030년까지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에 공공임대 주택 5000세대 등 총 1만 3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선 7기 당시 광주시는 부족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해당 부지 등에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에서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유보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공급 과잉, 2030년이면 1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 보급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광주지역 연도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04.5%로 전국 평균(102%)보다 2.5%가 높으며, 2024년 110.9%로 110%를 돌파한 데 이어 2030년이면 119.8%로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공급될 아파트 예상물량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만 2754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6562세대, 신규 택지개발 2만 9343세대 등 14만 세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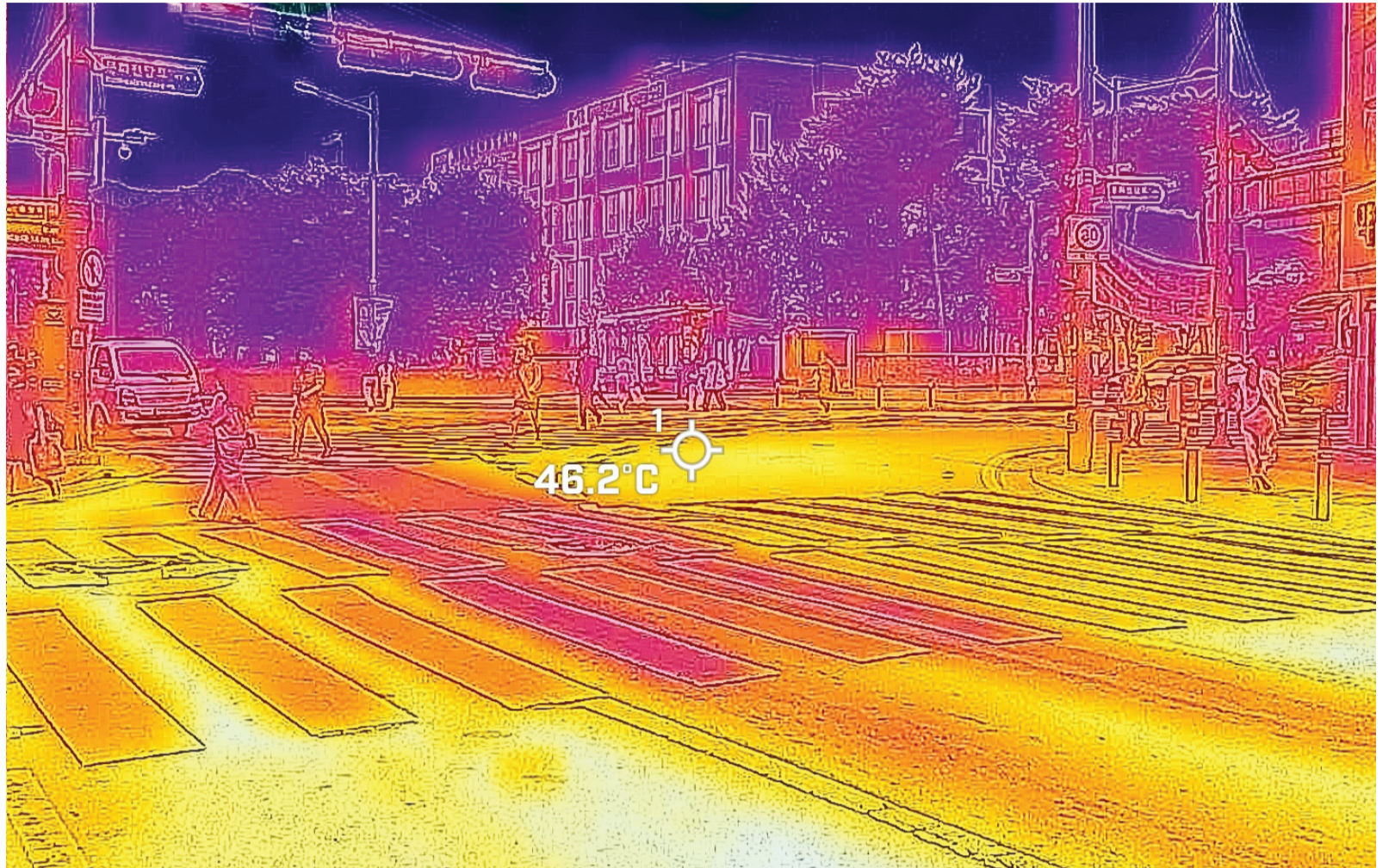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와 함께 이번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이 도심 외곽 중심의 개발 확산을 제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광주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1차 심의 유보 후 국토부와 협의의 과정에서 광주 도심 내 다른 부지로 사업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차담회에서 "지정 취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폭염 특보' 뜨거운 광주 폭염특보가 내려진 3일 오후,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본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노면이 46도를 기록하며 높은 열을 발산하는 노면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상단의 5·18민주광장의 나무들은 보라색을 띠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폭염 주춤 다시 장마... 광주·전남 50~100mm 비

광주·전남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새벽부터 전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0~10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3일 예보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하고 서해상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곳은 150

mm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4일 낮과 5일 새벽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는 5일 오전 그쳤다가 7일과 8일 다시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지난 1일부터 광주·전남 12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는 3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됐다.

광주·전남의 4일 낮 최고 기온은 24~27도를 보이겠고,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4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에 분포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 상에 발달하는 저기압 위치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노동위, 광주시-민주노총 공공연대에 화해 권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일반 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화해 권고를 했다.
3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위는 이날 오후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대체 보육교사 부당해고 관련 재심 신청과 관련, 결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노동위는 10일간의 화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 정오까지 노동위에 결과를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위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심의에서 광주시는 노조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 기간이 지나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는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대체 보육교사들은 복직이 목적이다"며

"노동위의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 해고된 보육 대체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요구하며 172일째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비전],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4세대 '나이스' 오류 학교 시험관리 대훈선	▶6면
좋은 일자리 전남에 있습니다-모아푸드	▶11면
굿모닝 예방-김지연 사진가	▶22면

함께하는 100년 농협! 함께하는 농협 가공사업!

농협
농업인의 마음을 담아 '농협'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국산 농산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전국 118개 농협에서
지역의 특색을 담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좋은 식재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만든, 좋은 식재료로
건강을 담은 식탁을 준비해보세요.

가까운 하나로마트와
농협몰(nonghyupmall.com)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세요